

전주상의 김정태 회장,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참석

등록 2024.11.25 14:34:28



[전주=뉴스시스]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(가운데). *재판매 및 DB 금지

[전주=뉴스시스] 김민수 기자 = 전주상공회의소는 김정태 회장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 임페리얼 호텔에서 개최된 제13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회장단 회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회장단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한일 경제협력과 양국 기업인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.

양국 상의는 에너지, 공급망, 첨단기술 등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,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상 의 간 협력 모델에 대해 논의했다.

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본회의 의견교환 시간에서 전주상공회의소 사업인 '전북백년포럼'과 '전북CEO 지식향연'에 대해 발표 했다.



[전주=뉴스시스]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(아래 오른쪽) *재판매 및 DB 금지

김 회장은 “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회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제를 발굴,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”며 “지역의 리더가 혁신적인 리더십과 경영전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, 김 회장은 일본 관서 지역의 대표 상공회의소인 고베상공회의소 가와사키 히로야 회장과 면담을 통해 향후 양 상공회의소가 상호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leo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